

부루(Buru) 섬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의 어두운 현대사

이 글은 *The Diplomat* (2019/05/07)에 실린 호주 저널리스트 Duncan Graham의 “To Buru Island: A Journey to the Dark Side of Indonesia’s Past : Mars Noersmono’s Story is a First-person Account of a Nation’s Shame”을 번역, 편집한 것임. 소제목들은 편집자가 임의로 만들어 삽입한 것임.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폭력을 정당화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 법치를 무시하며 있지도 않는 괴물을 두고 시민들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세계 도처의 독재 정부에 대한 냉철한 경고이기도 하다.

1965년 9월 30일 사태와 대학살

1965년 9월 30일 자카르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장성 여섯과 중위 한 사람이 피살되었지만, 폭동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수하르토(Suharto) 장군이 군부를 장악하고는 쿠데타를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의 소행으로 돌렸다. 수하르토는 수카르노(Sukarno) 대통령 대행으로 있다가 3년 후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1966년에 시작된 그의 이른바 신질서(Orde Baru) 독재정권은 32년이나 이어지게 된다.

쿠데타 시도라는 것이 있는 직후인 1965년 10월, PKI는 활동이 금지되고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대학살은 외국 침략자나 무장한 혁명분자들이 아니라, 수카르노의 반식민주의 발언을 평화적으로 지지해 왔던, 하지만 종종 비판적이었던 비무장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추정으로 50만 명이 사망했으며, 그 시신들은 강과 집단 무덤에 던져졌다.

정권 교체는 서방 정부들로부터 대한영을 받았다. 그들은 학살을 알고 있었지만 항의는 하지 못했다. 미국과 호주에서 최근에서야 공개된 공식 문서들을 보면 외교관들이 그 사건을 워싱턴, 런던, 그리고 캔버라의 본부에 보고했음이 드러난다.

1965년, 당시 냉전은 절정기였다. 호주 군을 포함하는 미군 등의 부대가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베트남에서 승산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정치판의 급작스럽고도 극적인 우익화 변동은 공산화 물결의 종식으로 간주되었다.

1966년 중엽, 호주 총리 해롤드 홀트(Harold Holt)는 뉴욕의 호주-미국 협회에서 “50만~100만의 공산분자들이 살해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정보부는 더 흥분했다. 1968년 한 비밀 보고서는 그 학살이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집단학살, 1950년대 초 마오쩌둥(毛澤東)의 대학살과 더불어 20세기 최악의 집단학살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주장했다.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도 수 천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기소된 적도 없었고 법정에서 변론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 또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듣지도 못했다.

수하르토는 가장 똑똑한 인물들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그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학자, 교사, 작가, 예술가들로서,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카르타에서 동북쪽으로 2,700km 떨어진 오지의 부루(Buru) 섬으로 추방되었다. 그 12,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마르스 누르스모노(Mars Noersmono)였다.



인도네시아 지도와 부루 섬

누르스모노의 책 『부루 섬에서의 죄수의 삶』

그는 『부루 섬에서의 죄수의 삶(Bertahan Hidup di Pulau Buru)』이란 자신의 책과 함께 정의를 부르짖는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이 책은 지난 세기 말 수하르토의 몰락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면서 집필하기 시작했다. 글쓰기는 쉬운 부분이었다.

누르스모노는 15년 동안 정부와 힘 있는 세력의 노여움에 맞설 태세가 된 출판사를 찾아 다녔다. 대학살에 자신들이 개입했거나 그 친인척의 역할이 폭로되지 않게 하겠노라 단단히 마음 먹은 출판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출판사들 중에는 군부, 경찰,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딱 한 곳, 반둥(Bandung)의 출판사 울티무스(Ultimus)만이 그 위험을 감수할 태세가 되어 있었지만, 주류 서점의 서가에 꽂힌 부수는 극소수였다.

그는 “제가 그 책을 쓴 것은 젊은 세대가 진실을 이해하고 살아남지 못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우리가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게 과한가요?”라고 묻는다.

“책을 쓰면서 제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짐도 덜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이제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잠시 79살의 쇠약한 노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제가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이 딱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그야카르타(Yogyakarta)에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루 섬에서의 잔혹성은 제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만약 입을 열 경우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죠.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했던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싸구려 출판물의 동정심 유발 글이 아니라, 사악한 지난 세월과 고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일하며 적응방법을 찾았는지를 적은, 명문의 꼼꼼한 358쪽짜리 역사책이다.



마르스 누르스모노

그 책에는 저자가 그린 죄수들 그림이 들어 있다. 그는 많은 재능의 소유자로 그 중 하나가 뛰어난 데생이다. 사진의 경우 흐릿하고 희미한 몇 장만이 살아남았다. 섬에 있던 죄수들 대부분은 혀를 찼다. 따라서 그의 스케치는 귀중하기 짝이 없다.

자와 섬 동부의 말랑(Malang)시에서 친척들과 지난 몇 년을 보낸 후 부루 섬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스케치를 시작했다. 자신의 그림이 전시되어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였다.

누르스모노의 체포와 부루 섬 수감

누르스모노의 교도소 행은 그가 권위 있는 반둥(Bandung)공대 학부 졸업반이던 25세 때 시작되었다. 그는 반둥으로 가기 전 자카르타에서 공부했으며 건축학 과정을 밟았다.

그의 부친은 네덜란드의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우편통신국 국장으로 있었다. 비록 확고한 민족주의자였지만, 가족은 자카르타의 큰 집에서 종종 네덜란드어를 사용하곤 했다. 그들은 또한 벽돌 공장도 한 곳 소유하고 있었다.

누르스모노는 네 자녀 가운데 막내로, 졸업 후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의 말이다. “우리는 늘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수카르노의 1945년 독립선언 후 반(反)네덜란드 운동 때, 부친계선 수라바야(Surabaya)에서 투쟁하고 있는 혁명가들에게 비밀 암호 메시지를 보내셨죠.”

전 세계 학생들이 그랬듯이 그 역시 토론 그룹에 가담했다.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학생기구(CGMI : Consentrasi Gerakan Mahasiswa Indonesia)였다. CGMI는 1965년 9월 말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그는 쿠데타 발발 직전 그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무서운 혼란기였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죠”라고 말한다.

큰 형인 조차르(Zochar)는 중국서적 번역가로 일하며 CGMI를 이끌고 있었는데, 제보가 있었

는지 혹은 뭔가 예감이 들었는지, 젊은 아내와 함께 네덜란드 대사관으로 피신해 국외로 망명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그 뒤 네덜란드로 가서 약사가 되었다.

1965년 10월 17일 지역 민병대 대원 두 사람이 집에 찾아왔다.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다. “그들은 상당히 공손했으며 우리에게 자신들을 따라 사무실로 가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총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부모님과 저는 체포되었죠. CGMI는 활동을 금지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18년을, 어머니는 3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누나와 형은 자카르타를 빠져나가 잡히지 않았죠.”

자카르타의 여러 교도소를 전전한 끝에 누르스모노와 다른 500명은 1970년 부루 섬으로 이송되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가는 데 5일이 걸렸다. 그때 즈음 그들은 집단 학살 소식을 들었던 터라 극심한 공포에 사로 잡혔다.

대학살 사태에 대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태도

정부의 말은 한결 같았다. 살인은 분노한 독실한 무슬림 농민들의 자발적 대응으로, 이들이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를 증오해 행한 것이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은 호주의 제스 멜빈 박사(Dr. Jess Melvin) 같은 해외 학자들에 의해 속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학살이 군대에 의해 신중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언한다. 제스 박사의 주장은 그녀가 아체(Aceh)에서 군부로부터 받은 오리지널 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부루 섬 '죄수들'의 노역 (누르스모노의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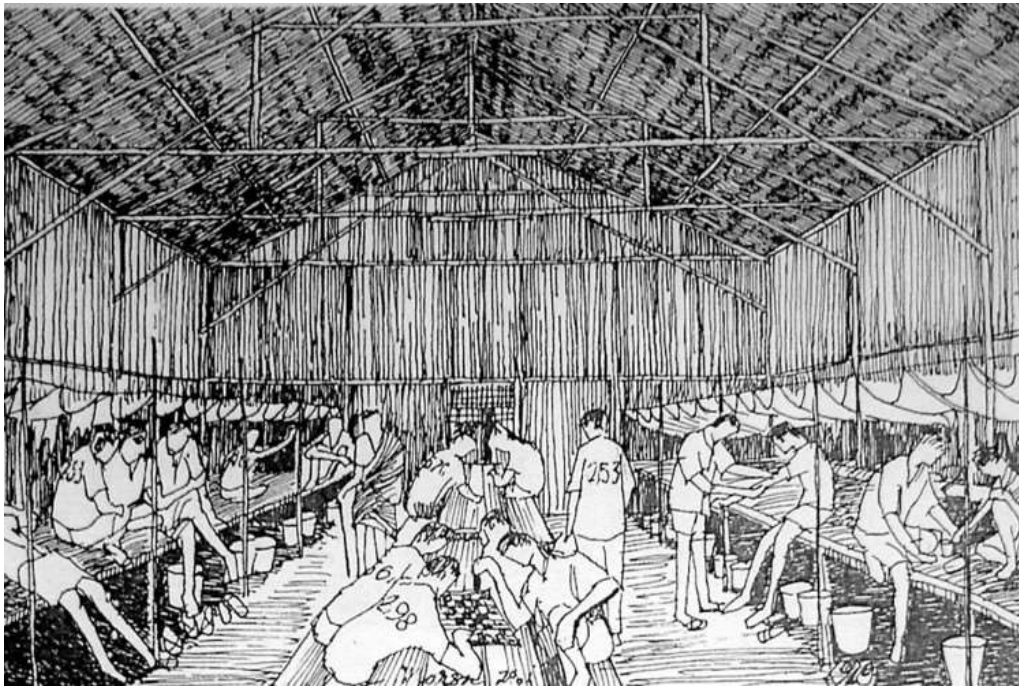
오리지널 문서가 존재하지 않을까 오랫동안 추측되어 왔다. 당시 젊은 박사 과정 학생이었던 그녀는 한 육군 장교에게 그 문서를 요청해 입수했으며, 이로써 모든 선배 학자들을 두 손 들게 만들었다. 그 발굴 자료를 다룬 그녀의 저서 『군부와 인도네시아 집단학살 (The Army and the

『Indonesian Genocide』은 2018년 출판되어 인도네시아와 해외 역사가들을 뒤흔들었다.

집단학살은 ‘안보와 질서회복을 위한 작전지휘’라는, 전체주의적 호칭을 단 비밀경찰 부대를 통해 획책되었다. 칼을 휘두르며 비밀경찰 부대로부터 제공받은 소총을 발사하는 남자들이 모두 무슬림은 아니었다. 특히 플로레스(Flores)와 더 동쪽의 섬들에서는 기독교인들도 가담했다.

살인은 흔히 “처형”으로 기술되곤 하는데, 신속하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죄수들은 잔인한 고문을 당했으며, 여성들은 신체 훼손과 강간을 당했다. 그런 일들이 존중과 보수적 가치의 문화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가담자 중에는 과거를 회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때는 너무 격변기였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하는 흑백논리의 시대였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도 있다. 수하르토의 선전부대는 증오로 가득 찬 환경을 조성했다. 그들은 살해된 장성들의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다는 그릇된 주장을 펼쳤으며, 1965년 9월 30일 쿠데타를 가리키는 Gerakan September Tiga Puluh의 이니셜을 따 그스타뿌(Gestapu)라고 부르는, 섬뜩한 느낌의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부루 섬 ‘죄수들’의 막사 (누르스모노의 스케치)

부루 섬의 정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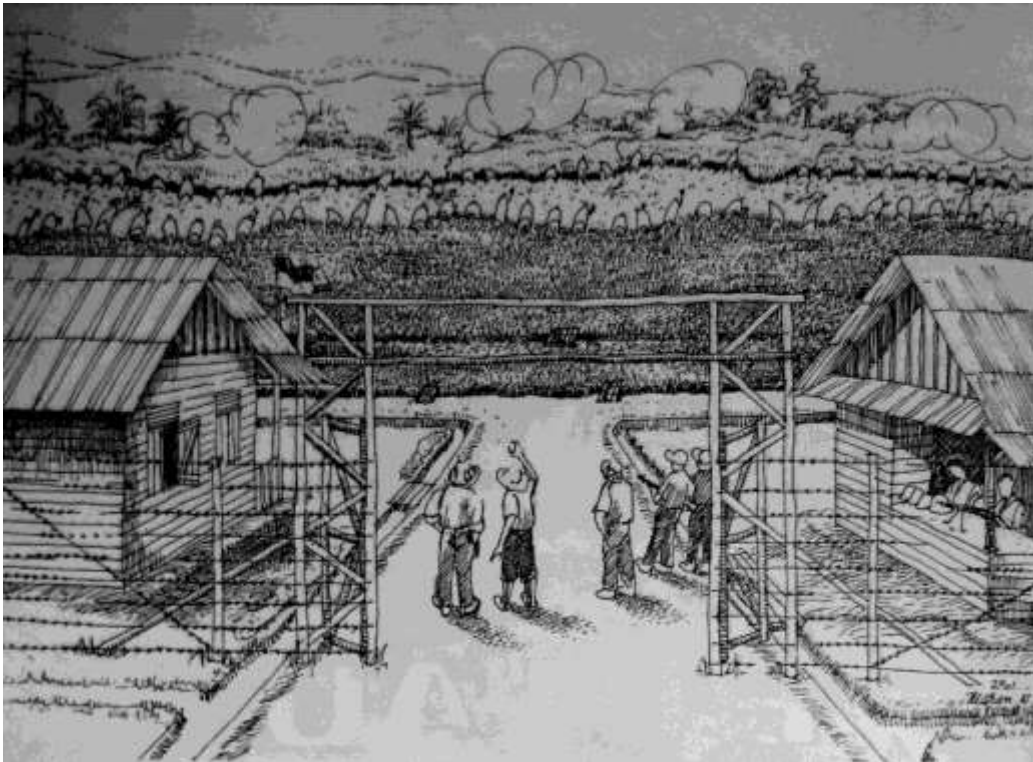
일단 부루 섬에 오면 남자들은 이미 시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추가로 수모를 당했다. 누르스모노의 셔츠에는 스텐실로 ‘493호’가 찍혀 있다. 그들은 무장한 교도관들로부터 몇 가지 기본 도구만으로 숲을 개간하여 막사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첫 두 달 동안 우리는 아외를 제외하면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다. “우리는 쌀죽과 종류에 상관없이 잡거나 채집할 수 있는 단백질로 연명했습니다.”

죄수들에게는 정치범을 뜻하는 ‘타하난 폴리틱(tahanan politik)’의 첫음절인 ‘타폴(tapol)’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채 최장 13년 간 억류되었다. *tapol*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투옥에 대해 보상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의 고초는 아직도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애초 토론회 개최를 공약했던 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2015년 부루 섬을 방문했지만, 그 기회를 오히려 농부들에게 쌀 수확량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누르스모노의 아들 드위누라(Dwinura)도 비록 비통한 어조이긴 했지만 같은 말을 했다. “여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다. “역사 공개를 밀고 나가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 없죠.”



부루 섬 막사 (누르스모노의 스케치)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저희는 아버지의 명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분은 누굴 해치거나 무언가를 흠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그 분이 뭘 어쨌다고 결국 감옥에 가셔야 했나요?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 행위가 저질러졌음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군에서 자카르타의 아버지 땅을 도적질 해갔지요. 지금까지도 보상이 없어요. 호주 같은 타 국가들과는 달리 화해도, 국가적 사과도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니까요.”

드위누라와 그의 두 형제는 부친이 또 다른 정치범의 딸과 결혼한 후인 1980년대에 부루 섬에서 태어났으며, 부친의 석방 후에도 그곳에서 지냈다. 약 200명의 다른 사람들도 남았다.

“자와 섬으로 돌아가봐야 저희에게 남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누르스모노의 말이다. “저희 신분증에는 저희가 전(前) 정치범임을 확인시켜주는 ET(*ex tapol*)라는 부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고용주, 친구, 이웃, 그리고 때론 연좌를 두려워하는 친척들로부터 확실히 외면당했습니다.” 정치범 출신들은 단지 부분적인 자유만 허용되었다. 그들은 계속 감시하에 있었으며 경찰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했다. 재산권과 공직도 거부되었다.



부루 섬 '죄수들'의 노역 (누르스모노의 스케치)

일단 수용소가 폐쇄되자 수하르토 정부는 인구 과잉 상태의 자와에서 가난한 농가들을 부루 섬으로 이주시키고 토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들 신규 전입자들은 정치범들이 닦아 놓은 정글 개간지를 인계 받았다. 또한 섬 오지까지 나있는 도로가 있어 집에 대한 접근성도 좋았다. 이들 도로도 정치범들이 닦아놓은 것이었다. 물론 정치범들이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누르스모노는 대학 때 배웠던 기술을 이용해 토건업자가 되어 자신의 집을 직접 지었다. 그는 또한 1786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건립된 개척 교회의 이름을 딴 Rehoboth 장로교회 공사를 설계 감독했다. 그 교회는 1998년 수하르토 퇴진 이듬해인 1999년 전국을 휩쓸었던 인종 및 종교 폭동 때 무슬림 군중이 쏜 소이탄에 의해 화재를 당했다.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복구 중에 있다.

프라무드야의 『부루 4부작』

수용소는 1980년 외국 정부로부터의 압력이 있는 후 폐쇄되었다. 부루 섬을 둘러싼 변화는 『부루 4부작(Buru Quartet)』 출간 이후 더욱 빨라졌다. 4권으로 된 이 소설은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금지되었다. 저자는 부루 섬에 13년 간 억류되었던 프라무드야 아난타 투르(Pramoedya Ananta Toer)로, 그는 2006년 작고했으며 노벨상 후보에 오른 유일한 인도네시아 작가다.

‘프람(Pram)’은 비록 집필을 금지 당하고 펜과 종이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20세기 초 무렵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한 소설을 용케도 낼 수 있었다.

소설은 민케(Minke)라는 이름의 젊은이, 그리고 식민지화에 대한 그의 커져 가는 인식을 다루고 있는데, 소설 중 ‘인도네시아’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는 글을 짓고는 외어, 밤에 동료 정치범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줌으로써 그 내용을 잊어버

리지 않도록 했다. 그가 마침내 종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원고를자와 섬으로 몰래 빼돌려 그곳의 비밀 작업실에서 인쇄했다.

이 작품은 호주 외교관 막스 레인(Max Lane)에 의해 영어로 은밀히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일단 자와로 돌아온 ‘프람’은 계속 집필 활동을 했으며, 그의 후속 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자행된 반체제 인사에 대한 추악한 전쟁을 추가 폭로했다.

부루 섬은 분명 언론인의 천국이다. 싱가포르보다 13배 더 크지만 주민은 2십만 명이 안 되는 이 외딴 섬은 비극과 영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정치가 곳곳에 널렸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입을 열고 싶어하고 사진을 찍게 하며 실명을 제공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로 우토모(Diro Oetomo)의 말이다. “저는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역시 부루 섬에서 지내며 결혼하고 가게를 열었다. 그는 담배회사 홍보 사진에 나음직한 사람이다. 평생 골초였지만 83살에도 아직 건강하다.



부루 섬의 ‘정치범’

“저희는 파파야 앞으로 담배를 만들어 마른 가지들을 서로 문질러 불을 내 담뱃불을 붙였지요. 제가 소근거리며 말하고 있는 것은 벽에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 분이 가고 나면 누군가가 돌아 와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겠죠.” “석방을 희망한 적이 있냐구요? 전혀요. 저희는 오로지 언제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굶어 죽거나 자살했다. 대개 목을 매거나 살충제를 마시는 식이었다. 누르스모노의 진술에 의하면, 특히 잔인했던 교도관 플다 파니타 우마(Pelda Panita Uma)가 한 정치범에 의해 살해된 후, 보복으로 42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교도관의 기념비는 있지만 정치범들은 인식 밖의 존재다. 사바나(Savana) 마을 공동묘지에는 150개의 묘지가 있다. 몇 개는 묘비가 있지만 대부분 표식이 없다. 사망자 이름 300여 개를 프라무드야가 모아서 개인적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훨씬 더 많다.

부루 섬의 과거를 은폐하려는 인도네시아 당국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과거 정치범들의 권리를 통제하던 압정이 사라진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압박 행위는 남아 있다. 우토모의 말에 따르면, “권총만큼이나 강력한 손가락질”은 더 이상 없다고 한다. 하지만 못된 것은 여전하며 그 시작은 부루 섬의 남레아(Namlea) 공항이다.

이곳은 말루쿠(Maluku)주 주도인 암본(Ambon)에서 비행기로 30분이면 닿는다. 부루 섬과 암본 섬은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해 있으며, 정향(丁香 clove)을 구하려는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오랫동안 약탈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두 섬은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긴 유혈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평화로운 일부다.

남레아 공항터미날에는 항공사 직원들 외에도 곳곳에 경찰, 군인, 평상복 차림의 정보부 직원 등이 깔려 있다. 그들은 아시아인은 본 체 만 체 하지만, 백인 승객이 도착하면, 그를 주목해 방문 동기를 묻고 서류를 챙겨서 상사에게 다시 보고하는 등 그가 체류하는 집주인을 압박한다.



부루 섬의 ‘죄수들’ (누르스모노의 스케치)

이런 압박 분위기에서는 기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정치범 출신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지만 그 가족은 아니다. 현관에 군화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학교에서 놀림 당하길 바라는 부모는 없다. 빨간 부기맨(Red Bogeyman: 민주인사들을 통제하고 고통을 준 세력을 빗댄 말)은 여전히 땅을 활보하고 다닌다. 올해 대선 캠페인에서 조코위의 경쟁 후보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의 선친인 위드지아트노 노토미하르조(Widjiatno Notomiharjo)가 인도네시아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말을 던지시 던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부루 섬과 그 학살에 대한 토론 모임들은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자행된 학살 사건들을 다룬 미국 태생 영국 감독 조슈아 오펜하이머(Joshua Oppenheimer)의 영화, 『살인 행위(The Act of Killing)』와 『침묵의 표정(The Look of Silence)』은 해외에서 개봉되어 여러 상을 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은밀하게 상영되었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공개될 경우 지역사회의 긴장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도라의 상

자를 공공 잡귀 놓으려고 하지만, 이야기는 이미 빠져 나간 상태다. 주로 운동가들의 도움에 힘입은 결과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 갔으며, 재판소는 인도네시아가 ‘인도주의(humanity)’에 반하는 범죄에 책임이 있으며 유죄라고 판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판결을 무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리아미자르드리야쿠두(Ryamizard Ryacudu)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다. “외국인들 말에 왜 귀를 기울여야 하나?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국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Komnas HAM)가 끈질기게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치인들에게 국가에 오점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깊이 있는 조사나 연구 결과는 해외로부터 온다.

지오프리 로빈슨의 『살인의 계절』

2018년에 캐나다인 지오프리 로빈슨(Geoffrey Robinson)은 『살인의 계절(The Killing Season)』이라는 제목의, 당시의 대학살을 강력하게 다룬 책을 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 책을 “2018년 최고의 역사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로빈슨은 부루 섬을 “강제 수용소”, “죄수 식민지”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그 이전에 부루 섬을 “수하르토의 굴라그(Gulag)”로 부른 적이 있다. ‘굴라그’는 구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 용어는 “정치적 갱생”을 위한 “재정착 사업”이었다.

현재 미국 UCLA 교수로 있는 로빈슨은 과거 코넬대학교의 작고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교수, 그리고 루스 맥베이(Ruth McVey) 교수의 제자였다. 두 사람은 쿠데타와 학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의 보고에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코넬 보고서(Cornell Paper)』로 알려진 그들의 분석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신빙성을 의심받았고 저자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졌다. 이같은 반발은 오히려 저자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훨씬 더 넓은 독자층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고 했던가. 로빈슨은 “저는 여전히 구역질 나고 화가 치밀어요. 자행된 범죄들이 거의 잊혀져 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아서 더 더욱 그래요”라고 말한다.

쿠데타 발발 50주년 되던 2015년, 학자, 언론인, 희생자 가족 등에 의해 과거사를 논하고 화해 과정을 시작하려는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불발에 그쳤다.

그 해, 경찰은 발리에서 거행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연례 행사인 ‘우붓 저자 및 독자 페스티벌(UWRF: Ubud Writers and Readers Festival)’에 대해 만약 쿠데타와 학살에 대한 서적들을 홍보할 경우 폐쇄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참석자들은 격분했다. 외국인 행사 조직자들은 유화책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했지만 토론은 계속되었다.

“저는 제가 체포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누르스모노의 말이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 보세요. 제가 공산주의자였나요? 저는 공산주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러시아어인가요, 중국어인가요, 아님 인도네시아어인가요?”

그는 개신교도이다. 그는 신앙에 힘입어 시련을 통과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요인은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그의 적극적인 마인드, 그리고 유칼립투스 기름 제조를 위한 투박한 증류기 같은 토박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인도네시아 신자들로부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다. “저희가 처형당하지 않은 것은

해외 교회들이 인권 남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의 곤경을 방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점차 억제가 풀렸죠.” 그러다 마침내 그 사람들의 가족이 섬에 들어 오도록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일단 자유의 몸이 되자, 누르스모노는 부친도 정치범이었던 누르실라(Nursilah)와 결혼했다. “만약 제가 부루 섬에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를 못 만났겠죠.”

“저는 언제나 쾌활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수하르토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저희에게 한 짓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수카르노에 의해 확립되어 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과 기질을 파괴한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의 말마따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알지 못한다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자가 일곱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그 아이들이나 제 조국, 또는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에게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